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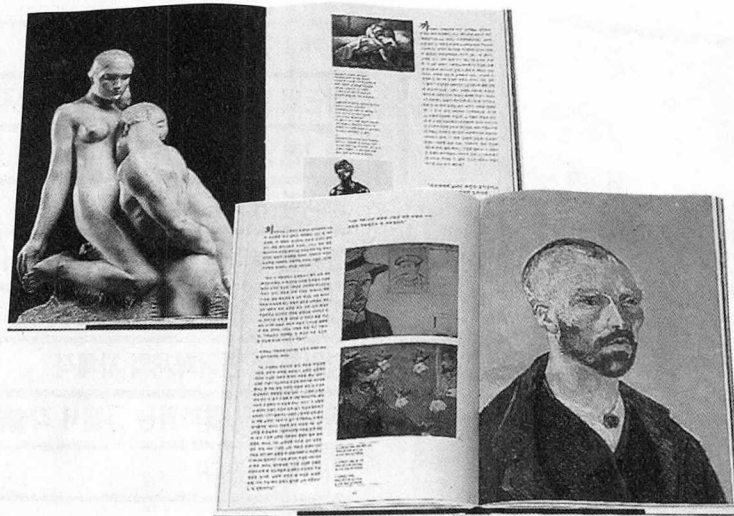
# 韓·佛 공동출판 모범 보인 미술전집

## 세계8개국에서 동시간행된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출판을 통한 시각예술의 대중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던 열화당(대표 이기웅)이 프랑스의 쉐느 출판사와 공동으로 제작한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1차분 4권이 나왔다.

세계유명 화가들의 작품과 전기를 색다른 방법으로 한데 담은 이 시리즈는 올해로 창사 스무돌을 맞는 열화당이 예술도서 전문출판사로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진다는 뜻에서 한·불 공동출판이라는 전례없는 출판형태를 도입, 기획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모은 미술전집. 3년여의 작업 끝에 비로소 선보인 1차분 4권-고흐, 고갱, 로댕, 르누아르 편-은 손끝에 묻어날 듯한 선명한 인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 들어간 작품론 등 종래 조악한 화집에 만족해야 했던 미술애호가들에게 원화를 대하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선사, 국내 미술도서 출판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차분에 이어 매년 4권씩 장장 25년에 걸쳐 100종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이 야심에 찬 기획은 세계 굴지의 아셰트출판그룹 산하 예술도서 전문출판사인 쉐느가 책임기획을 하고 우리나라의 열화당을 비롯해, 영국의 배리 앤 젠티스, 독일의 뉘른트, 스페인의 프라네타, 이탈리아의 파브리, 일본의 中央公論社, 미국의 헨리 홀트 등 8개국 예술도서 전문출판사들이 함께 참가, 각국에서 동시출간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예술도서출판의 난점을 여러나라가 공동으로 제작·인쇄해냄으로서 원가절감의 이득을 독자들에게 돌려주는 장점도 갖는다. 만들어지는 방법도 독특하여, 프랑스어판 저술과 사진자료, 도판



「출판미술」의 새영역을 개척, 예술도서로서의 진수를 펼쳐보인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시리즈.

을 토대로 디자인한 책이 먼저 제작되어 각 나라로 보내지면, 해당국에서는 텍스트부분의 본문과 사진설명을 번역, 대지작업 후 인쇄용필름에 옮겨 프랑스로 보내게 된다. 그렇게 보내진 필름은 스위스 베른에서 함께 인쇄, 제본을 거쳐 다시 각국으로 보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미술전집이 갖는 내용상의 가장 큰 미덕은 해당작가 연구에 세계최고의 권위를 지닌 미술사가가 대거 참가, 수준 높은 작품론과 전기를 쓴 점과 세계에 흩어져 있던 다수의 미공개작품들이 최초로 공개, 대가들의 작품 전모를 두루 감상할 수 있게 꾸민 점이다.

파스칼 보나푸(미술평론가·고흐) 알폰소 E 페레스 산체스(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장·고야) 모니크 로랑(前로댕미술관장·로댕) 소

피 모네레(미술사가·르누아르) 등으로 구성된 집필진은 미술사가 오늘의 시각에서 다시 씌어져야 한다는 비등한 요구에 부응, 연대기별 작품해설은 물론 개인의 삶을 조망한 전기를 균형있게 안배하여 미술전공자와 일반대중 모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또한 개인소장품으로 전세계에 흩어져 있던 미공개작으로, 크렐리-뮐러 재단이 소장하고 있던 고흐의 「광부들의 귀가」(1881년작)와 푸쉬킨박물관 소장 「카페에서」(1888년작) 등이 일반에 처음으로 소개되고 있다.

특히 지면상 미처 소개 못한 작품들은 뒤편에 흑백사진으로 처리, 개별작가에 대한 자료집으로서의 완벽성을 높여놓은 점과 뒤따라 나오는 작가연표, 당대 예술사·일반사 등도 함께 실어 한 작가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텍스트의 참신성과 성과를 국내독자들에게 과감없이 전달하기 위해 정진국(미술평론가) 문봉섭(공군사관학교 불어과 강사) 장희숙(이화여대 불문과 박사과정) 이은진( ) 등 프랑스에서 문학 및 예술사를 수학한 30대 한글세대들에게 번역을 의뢰, 시대감각에 맞는 문체로 신선함을 선사한다.

올해말쯤 선보일 2차분은 피카소, 마네, 클림트,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작품론이 실릴 예정이며, 92년도 3차분은 베르메르, 세잔느, 쇠라, 보티첼리 등이 준비되고 있다. 진정한 예술가였으나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천재적인 작가들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기획의도대로, 베르메르와 같은 복구르네상스를 주도한 대표적화가이나 대중의 관심 밖에 있는 작가들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점도 주목을 끈다.

높은 관심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기획되고 만들어진 미술전집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은 미술관문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가까운 곳에 두고 보는 생활문화로서의 미술의 가능성에 도전하려는 발상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한편, 미술에 관한 출판물을 넘어 「출판미술」이라는 새로운 복디자인의 세계를 열어보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열화당 / B4변형 / 각 160면 / 전4권 160000원  
— 정혜옥 기자

컬러예화집

# 돈이 보낸 편지

이익용 지음

돈이 보낸 편지 2집

출간



돈이 보낸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삶의 지혜와 감동이 출렁이는 寸鐵殺人의 메시지들.  
진실은 단 한 마디로도 전달되는 것.  
짧지만 깊고 긴 여운을 주는 예화 89편이 있습니다.  
(150쪽 ₩ 2,800)

● 칼럼집  
● 고독이라는 교만  
● 212쪽 ₩ 2,500

● 에세이집  
● 내 놀던 옛동산  
● 148쪽 ₩ 2,000

● 칼럼집  
● 찢어진 우산으로 하늘을 가리고  
● 220쪽 ₩ 3,300

● 독심 대립기획  
전화 : 02-275-5296